# 경찰, 야간에 유치인 변호인 접견 가능

## 현행 규칙 규정시간 외 변호인 접견 최대한 허용

## 가족·친구 등 접견 보장…접견실 환경 등 재정비

경찰이 규정시간 이외에 야간에도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도록 유치인 접견교통권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해 규정시간(주중 오전 9~오후 9시·주말 오전 9~오후 8시) 외에도 변호인의 접견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과 같이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한다.

유치인의 가족·친구 등과 같은 비변호인의 접견 보장을 위한 지침도 구체화됐다.

증거인멸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비변호인의 접견도 최대한 보장된다. 접견 등 금지 요청조치는 정해진 양식을 활용해 주무과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객관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비변호인의 접견을 예외적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취지 및 구체적 사유, 불복절차를 전화·문자발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및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했다.

변호인 접견실도 설치기준에 맞게 재정비된다. 변호인 접견 시 유치인보호관은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창)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장성 모 초교 학부모 '교사 폭력' 근절 요구

### 전남도교육청

장성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근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성의 A 초등학교 학부모 B씨가 "지난해 말 A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도중 강사가 발로 학생들의 다리를 밟거나 벌을 세우는 등 폭행했다"고 최근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B씨는 "2016년에도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수업 중 교사의 부적절 교육법 근절되지 않아"

B씨는 "2016년 당시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권, 교권을 침해하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측은 2016년 8월 학기 도중 해당 담임교사를 교체했으며, 지난해 말 벌어진 방과 후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을 폐강한 후 경찰에 통보했다.

한편 A초등학교 해당 교사와 방과 후 학교 강사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봄소식을 전하는 '매화'** 20일 울산시 남구 선암호수공원내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성큼 다가온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 설연휴 응급의료상담 평일보다 2.7배↑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기간(15~18일)동안 국민들이 병원과 약국 안내와 의료상담을 받기위해 119에 신고한 건수는 5만6583건이라고 20일 밝혔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응급의료상담은 일평균 1만4146건으로 평일 3787건에 비해 2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명절기간에 비해서도 일평균 971건이 늘어나 7.4%가 늘어났다.

응급의료상담 중에서 의료상담(병원·약국 안내)이 일평균 1만2093건(총건수 4만83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증가율도 평일(1888건)에 비해 5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병 상담의 경우는 일평균 562건으로 지난해 명절과 비교했을 때 92건이 늘어나 19.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뉴시스

## 정부, 문화예술계 성폭력 신고센터 신설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 파문에 대응해 정부가 분야별 성폭력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부터 영화계 성폭력 신고 창구를 영화인신문고, 영화진흥위원회 내 공정센터에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으로 옮긴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사례를 접수하기 위해 3월중으로 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상담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대중문화계 성폭력 신고 창구로는 콘텐츠진흥원 내 공정상생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문학·미술, 영화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 시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문화예술·영화·출판·대중문화산업 및 체육으로 분야를 나눠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또 문화예술계 분야별로 성희롱·성추행 예방 지침을 작성하고,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필리핀 발라바크서 설사병 확산 사망 10명

필리핀 남서부 팔라완 주 발라바크 섬에서 설사병이 퍼지면서 지금까지 생후 11개월 영아를 비롯해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보건 당국이 20일 밝혔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발라바크 섬에서는 지난 2개월 동안 약 200명이 설사병으로 쓰러졌다.

당국은 설사병이 지하수의 대장균에 더해 열악한 위생 관리 때문에 식수가 오염되면서 창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팔라완 주 보건 관리 메어리 앤 나바로는 발라바크 삼의 거의 모든 수원이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식수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에는 팔라완 주 케손에서 설사병이 유행해 4명이 숨지고 60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했다.

필리핀에서는 위생 불량 등으로 이질성 감염증이 도처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치사율이 높아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시리아 정부군 동구타 공습으로 77명 사망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인 동구타를 공격해 하루 만에 77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정부군이 동구타 전역에 공습, 로켓포, 대포 공격을 가해 지난 24시간 사이 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사망자 중에는 최소 20명의 어린이들이 포함돼 있으며, 300명 이상이 다쳤다고 SOHR는 전했다.

라미 압델 라흐만 SOHR 소장은 "정부군의 집중 공격은 동구타의 모든 주거지역을 목표로 삼았다"며 "정부군은 일요일에 시작된 대규모 폭격에 뒤이어 동구타에 대한 대규모 지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타 지역의 한 의사는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항공기들은 주거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쏘고 있다"며 "우리 병원은 부상자들로 초만원이다. 마취제와 기타 필수 약품들이 바닥나고 있다"고 말했다.

## 캘리포니아 또 산불…15% 진화에 그쳐

캘리포니아 중부 야산지대에서 18일 재발화한 산불이 강풍의 힘으로 여전히 불타면서 수백 채의 건물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시에라 네바다 동쪽 산지의 비숍은 1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주 산림청이 발표했다. 지금까지 불타 사라진 이 곳 숲은 9 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 전체에서 불에 타서 초토화된 떡갈나무 숲과 참나무 관목 숲이 이미 총 11 평방킬로미터이며 이 크기는 소방대원들이 정확한 피해지역 지도를 만드는 데 따라서 변할 수 있다.

18일 오후 2시께 발생한 비숍 지역 산불로 몇 군데 부락과 캠핑 장들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현재 불길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건물은 500여채에 달한다. 그 중에는 1880년대에 지어진 문화재급의 오래된 철도 역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소방대원들은 말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는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밤새 크게 확산되었고 비숍 북부 지역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 모잠비크서 쓰레기 더미 무너져 17명 사망

19일(현지시간) 모잠비크에서 폭우 여파로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면서 17명이 깔려 숨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 외곽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3층짜리 건물 높이로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가 폭우로 무너져 내렸다.

현지 언론들은 17명이 쓰레기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구조 당국은 쓰레기 잔해 아래 더 많은 사람이 묻혔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고가 난 지역은 빈민촌으로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가 또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해 피신했다.

재난 당국 관계자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집 위로 무너졌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집 안에 있다"며 주거지를 잃은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